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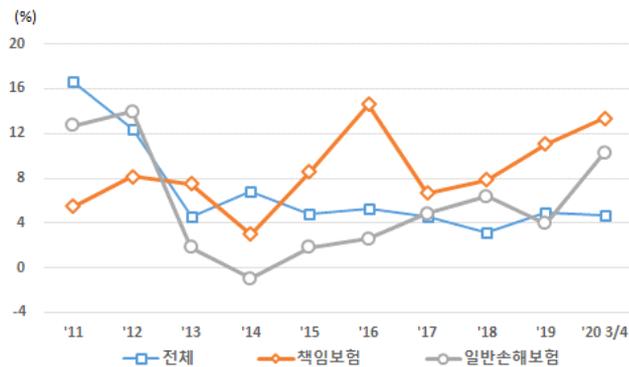
김세중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요약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배상책임보험은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책임배상보험 등으로 구성되며, 의무배상책임보험 확대 및 제도정비, 전문직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확대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최근 사회재난 증가로 재난안전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인의 배상책임보험 수요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산업은 새로운 배상책임보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수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배상책임보험은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책임배상보험 등으로 구성되며, 의무배상책임보험 확대 및 제도정비, 전문직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확대로 최근 빠르게 성장함
 - 일반배상책임보험은 전주 및 유도선 사업자, 도로운송사업자, 가스사고,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정부에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재난안전과 관련한 배상책임보험들이 포함됨
 -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의사, 변호사, 기업체 임원 등 전문인의 직업 활동상의 과실로 발생한 법률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며,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생산자의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부적절한 제품안내서 및 경고문구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임
 -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2019년 말 1조 원으로 전체 손해보험의 1.1%, 일반손해보험의 10.3%를 차지함
 - 2019년과 2020년 3/4분기 각각 11.1%, 13.3% 성장하였으며, 2010년에서 20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8.1% 성장하면서 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의 4.8%에 비해 고성성장함

〈그림 1〉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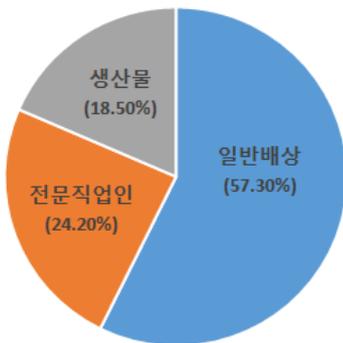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2020년 3/4분기 현재 손해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 비중은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순이며, 2010년에서 2019년 연평균 증가율도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3/4분기 현재 손해보험회사 배상책임보험 중 일반배상책임보험은 57.30%를 차지하며, 2010년에서 2019년 연평균 11.1%로 고성장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회사 배상책임보험 중 24.2%를 차지하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2010년에서 2019년 연평균 5.1% 성장하였으며, 18.5%의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연평균 4.8%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임

〈그림 2〉 배상책임보험 종목별 비중 및 연평균(2010~2019년) 성장률



구분	2010~2019년 연평균 성장률
일반배상	11.1%
전문직업인	5.1%
생산물	4.8%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일반배상책임보험은 신규 의무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면서 성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증가, 키보드 보편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의무배상책임보험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음

- 2019년 3월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6월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¹⁾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회사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이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2020년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중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과 농어촌 민박시설 등의 시설이 추가 확대됨
- 소방청에 따르면 매년 2천여 명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0만 원²⁾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 2월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5품종³⁾ 맹견에 대한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관련 부처에서 전동킥보드 의무보험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1) 의무가입대상은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1천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임
 2) 보험개발원(2020. 8. 10), 「동물보호법 개정에 맹견배상책임보험 개발」, 『Monthly KIDI Brief』
 3)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로트와일러, 도사견임

- 한편 2020년 6월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수준을 정비하고 가입 확대를 유도하도록 함⁴⁾(의무보험 가운데 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된 부분을 언급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기준 14개 부처, 30개 법령에 따라 30여 종의 의무보험이 운영 중에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이를 통합함
 - 각종 재난안전 의무보험이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면서 각 의무보험별 보상수준이 상이하고 보상한도가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함
 -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자의 가입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또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의료관련 분쟁증가, 기업에 대한 소송을 용이하게 하는 법률 발의 등의 영향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발표하는 의료분쟁 조정건수는 2015년 1,691건에서 2019년 2,82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의료분쟁의 증가는 의료인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수요 증가를 야기할 수 있음⁵⁾
 - 2020년 9월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소송이 용이해지고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경우 임원배상책임보험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음
 - 미국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최근 3년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미국 내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⁶⁾

- 최근 사회재난 증가로 재난안전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인의 배상책임보험 수요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산업은 새로운 배상책임보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행정안전통계에 따르면 2010년 6건에 불과하던 사회재난 발생건수는 2019년 28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 확대는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의무배상책임보험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 보험산업은 4차 산업 도래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배상책임보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무배상책임보험 이외에도 자발적인 배상책임 보장영역 확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소비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전문가 및 기업에 대한 소송제기가 과거보다 보편화되는 사회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분야 수요 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 6. 9), “재난·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 실질적 보상 보장한다”

5) 한국의료분쟁조정원(2020),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6) A.M.Best(2020. 6. 10), “Accelerating Trends, Unprecedented Turmoil Could Lead to Seismic Change for D&O Industry”